



김미숙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체육사 전공
엘리트스포츠, 독일스포츠체계와 문화에 관심
misukkim@kspo.or.kr

코로나-19 팬데믹, 일상의 정지 하지만 다시 시작이다

팬데믹 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은 전 세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였고,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과 화상회의, 배달음식, 플라스틱 가림막, 경기장에 무관중 장면은 물론 ‘확찐자’라는 우스개 단어들이 생겨나는 등 상상 이상의 상황들에 우리는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체육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숙제로 인식하는 듯 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권고는 강제 집행과도 같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감염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스포츠 리그 취소,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미운영, 체력단련장 및 체육도장 등 감염 발생에 따른 자발적 운영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컸다. 전국체육(장애인)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체육계의 주요 대회는 이미 취소된지 오래이다. 얼마 전 성문정 박사가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스포츠과학 특집편 151권)에서 ‘끝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이자, 아사 직전인 스포츠현장’이라고 표현했듯이 체육계는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이번 호에 담아 보았다. 초등 3학년 진우부터, 운동을 재미로 여겼던 60대 중년 여성, 수영 강사, 생활체육사업 담당자, 스포츠이벤트업체 대표, 그리고 학교운동부 담당교수 등 대상으로 솔직담백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들어보았다. 이들에게 부탁한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2.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무엇이었는지?
3. 그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4. 혹시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5.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김진우(10세 초등 3학년)

1. 학교에 갈 수 없었고, 특히 체육 수업을 못한게 가장 힘들었어요.
2.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3. 아빠가 저녁마다 밖에 나가자고 하셔서 누나랑 고수부지에 가서 자전거와 줄넘기를 주로 했어요.
4. 자전거를 열심히는 타서 기분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먹을 거 많이 먹고, 게임을 하다보니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5. 고모가 만나기만 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집은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있는데 고모 말씀에 따라 계단으로 아주 가끔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 가끔이에요.^_^ 지금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체육수업을 해요.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래도 체육을 하니까 참 좋아요. 계속 열심히 뛰면 살은 조금 빠질 듯 해요.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부산 거주)

1. 자유로움이 없어졌다.
2.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먹고 누워서 티비를 본다든가 게으른 성향이 많아졌다.
3. 만보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타기, 기독교 방송 청취(78억 전세계인을 위한 코로나-19 기도하기)
4. 지속적으로 운동과 취미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고 있다. 찾아서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복영(마곡스포츠센터 수영 강사)

1. 갑작스런 수영장 폐쇄로 인한 휴식기를 맞은 점, 수입의 감소, 100%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영수업이라 비대면 국면에 대책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음



출처: 아이클릭아트

2. 수영 관련 콘텐츠 동영상 제작
3. 여러가지 콘텐츠 구성과 영상 촬영, 영상 게시 등 언택트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됨
4. 수영 회원들의 선호도 관련 설문조사라는 선행없이 진행, 완성도가 떨어지는 콘텐츠 제작. 유명 유튜버와 전문가의 영상과 비교되어 한계가 있음
5. 비대면 : 네이버 트랜드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콘텐츠 선택
대면 : 프리랜서 연합 앱을 통한 출장 레슨시스템 구축

이은지(남양주시체육회 팀장)

1. 사업 추진에 있어 갑작스런 변경과 안전을 감안한 합리적 결정의 어려움
2. 정부 지침과 지자체의 정책 방향 적극 반영, 변화에 따른 상황 적극 수용
3. 코로나-19 방역에는 기여했으나 체육정책 추진 불가 또는 미비
4.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되는 데 2020년에는 대책이 없음
5. 비대면, 개인 자율 온라인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김덕희(Intoin 대표)

1.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집합금지로 인해 야외 행사(이벤트) 취소에 따른 회사 매출 감소
2. 신규 사업 아이템 구상 및 사례 조사,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영업
3. 소규모의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대체로 실패함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
4.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투자에 대한 부담, 신규 사업 실행 시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19에 의해 사회경제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업의 성공 확률 높지 않음
5. 언택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의 실패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존 업종 외에 신규 업종의 진출 가능성 여부 탐색

엄대영(위덕대학교 교수)

1.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취소 된 것이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지속의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회 일정 연기로 인한 일정관리의 어려움 및 훈련과정에서의 방역 등이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의 연속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교내 방역대책 기구의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들에게 전달하여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내 훈련에 대한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학생선수들의 심리적 불안요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후반기 전국단위 대회개최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시기에도 학생선수들에게 훈련과 대회 출전은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이며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학생선수들의 이러한 가치부여에 대한 폄하와 중요도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듭니다.
5. 중요한 측면은 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이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이 되며, 2021년에는 백신 개발 치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을 깨뜨린 주요인이지만 반면 일상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던 계기이기도 하다. 수영 회원들의 여섯명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10살의 진우에게는 체육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60대 중반여성에게는 삶의 감사한 조각들을 찾을 시간이 되었으며, 업체 대표에게는 각종 신규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울 때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은 오랫동안 운동(체육계)에 참여해왔던 경험으로부터 쌓인 긍정적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된다.